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예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예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7년 6월 18일 (제903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산전수전(山戰水戰)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4:12~13).
 사도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이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떻게 그가 그런 경지에 이르렀을까? 그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다.

나의 목회 32년은 그야말로 물 없는 사막이요, 눈 덮인 산야를 걷는 것과 같았다. 힘들었다. 괴롭고 아팠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그 때는 몰랐다. 그러나 지금은 안다. 일체의 비결을 내게 가르치시려고 그러셨다는 것을.

칭찬 받는 것에만 익숙한 사람은 비난받을 때 마음이 요동치며 감정이 폭발한다. 대접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은 푸대접받을 때 마음이 괴롭다. 진수성찬만 대하던 사람은 대충 차려진 밥상 앞에서 망설이고, 침대에서만 자던 사람은 바닥에서는 못 잔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건강한 사람은 아픈 사람의 심정을 모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것이다. 체휼하시려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산전수전을 겪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것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이로 인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을 득도했다고 하는 거다.

자고로 화려한 자수의 뒤에는 실이 이리저리 엉키고 매듭이 많은 법, 산전수전의 삶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임을 알고 힘내자. 아름다운 결과가 있으리라.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혜다

벨라루스(Belarus)는 서방언론을 통해 비판적으로 소개되던 폐쇄적인 나라가 아니었다. 항상 느끼는 바이지만, 언론의 작은 안경을 통해 보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 수도 민스크(Minsk)는 마치 싱가포르(Singapore)를 보는 것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였다. 좋은 공기와 깨끗한 환경유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국민들 가운데 60%가 넘게 현 정부를 지지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장기집권에 부정적이던 젊은 층들도 경제가 도탄에 빠지고 내전 상황에 치달고 있는 이웃나라 우크라이나(Ukraine) 사태로 인해 시각이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부패하고 나약한 지도력으로 인해 경제는 도탄에 빠지고 동서가 서로 대립하며 내전

회를 빼앗기고 4년을 떠돌며 고생하다 심지어는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불수가 될 뻔한 사건도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자신 소유의 농장에 가건물로 교회를 세워 목회 중인데, 3천명이 넘는 교인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반으로 줄었고, 새 건물을 짓고 싶어도 정부의 허가가 없어 현상유지만 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많은 고통 속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슬라바 목사였다. 따라서 목사님의 이번 벨라루스 방문은 슬라바 목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없었다. 슬라바 목사는 목회 25주년을 기념하는 교회행사를 주말 3일 동안 진행하며 은밀하게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했다. 목사님의 방문은 극비사항이었다. 교인들은 전

행하였다. 목사님은 첫날 단에 올라 슬라바 목사와 대한민국, 벨라루스 양국의 국기를 교환하며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성도들에게 국가와 민족을 위해,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할 것을 요청하셨다. 어찌 보면 이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이니라”(딤후2:2)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국기를 교환하고 국가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벨라루스 정부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도 깔려있었다. 교회가 정부를 비판하고 대항하는 곳이 아니라 국가를 위해, 정부를 위해 기



벨라루스 집회 광경(민스크 New Life Church)

상황으로 치달고 있다. 이번에 벨라루스에서 만난 드네프로 예수중심교회 슬라바 목사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해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이번 벨라루스(Belarus) 집회는 슬라바(Slava) 목사의 은밀한 계획 속에 진행되었다. 지난 2008년에 첫 집회를 계획했다가 벨라루스 정부로부터 비자발급이 거부되어 무산된 바 있다. 그 원인을 알고 보니 슬라바 목사의 잦은 반정부 발언으로 루카셴코(Lukashenko)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기 때문이었다. 말하자면 핍박을 자초한 셈이다. 그로 인해 슬라바 목사는 교

회 이 사실을 몰랐고, 중추적인 일꾼 몇몇만이 알고 진행하였다. 교회 내에 조차 목사님의 방문을 광고할 수 없었던 것이다. 목사님은 슬라바 목사에게 ‘하나님의 일은 숨기는 게 지혜’라는 잠언 25장 2절의 말씀을 읽어주시며 지혜로운 판단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슬라바 목사는 “만일 집회광고를 했다면 목사님 일행은 공항조차 통과하지 못했을 겁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서 그런지 슬라바 목사가 단에 올라 한국에서 이초석 목사님이 오셨다고 광고하자 환호성과 박수가 터져 나왔다. 목사님은 아침, 저녁으로 세미나와 집회를 진

도하는 곳임을 알려야한다는 목사님의 조언에 따른 것이었다.

그동안 해외집회를 계속 보류하고 계셨던 목사님의 이번 벨라루스 방문은 침체에 빠져있던 슬라바 목사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되살리는 매우 귀중한 시간이었고, 하나님께서 슬라바 목사와 그의 성도들을 위해 준비한 감동적인 선물이었다. 많은 성도들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열광의 도가니 속에 진행되었다. 한국에서 기도해주신 성도님들께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전통의상과 빵으로 목사님을 환영해주었다



모든 성도들이 새로워진 벨라루스 집회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왕상3:4~15)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나로 인해 주님이 기뻐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 말입니다. 아마도 대개는 못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며, 근심도, 격노도 발하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겼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격분하셨는지, 때론 그들로 인해 얼마나 근심하셨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웃나라에 붙이기도 하셨고, 전염병으로 죽이기도 하셨지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심히 좋아하셨지만 그들의 패역함을 보시고 물로 쓸어버리기도 하셨고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태우셨습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어찌 하셨는지도 볼까요.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왕상3:5)고 하셨습니다. 그 때 솔로몬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좋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빠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왕상3:7-9). 이 말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성경은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왕상3:10)고 기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부와 영광도 함께 주사 열왕 중에 이와 같은 이가 없게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이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에녹은 죽음을 맞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자입니다(창5:21~24). 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 없이 하늘로 옮기셨을까요? 성경의 기록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히11:5). 그의 아들인 므두셀라는 969세까지 사는 장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기쁨이였습니다. 그 분이 세례 요한에게서 물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임하시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3:17). 하나님은 늘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

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요8:29). 어디 그 뿐입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빌2:9~10).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얻었고,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라 하셨지 않습니까. 성경은 또한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잠16:7)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음에서 우리의 삶은 과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인지, 아니면 상심만 끼치는 삶인지, 더는 격노케 한 삶인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돈을 더 벌려고 늘 많은 것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번민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하는 이 생각으로 번민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오는 것을 위의 사례에서 알 수 있습니다. 태조 이방원도 셋째 아들인 충녕대군, 곧 세종이 마음에 들자 왕도를 무시하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마음이나 부모 마음이나 다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나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마음을 도둑질 당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도계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도수를 정확히 체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고민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면 저 딸을, 저 아들을 축복할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알아야 기쁘게 해드리지요. 첫째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히11:6)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은 곧 영혼구원과 직결되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주하시는 이심을 알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드라크마’의 비유로

설명하시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



총회장 이초석 목사

니라”(눅15:10)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전도를 나가야 하는지 아시겠지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빌2:1~4)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교만을 버리고 낮아져 남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면 능히 그러실 수 있지요? 셋째, 진리 안에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혼이 잘 됨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을 주십니다(요삼1:2~3). 진리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부모 말

을 잘 들어야 부모가 기뻐한다는 말입니다. 에서가 이방여인을 취했을 때 그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가 마음에 근심을 했습니다(창26:34~35). 그러나 야곱은 그의 부모 말씀대로 순종하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명기 28장의 복을 주십니다.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기도 딱이 생긴다

넷째, 우리가 드리는 헌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십일조, 선교헌금, 첫 열매, 주일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9:7).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빌4:18)고 했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빌4:19)고 했습니다. 기뻐하신 하나님이 심은 대로 풍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까?” 하고 상심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 마음을 일으켜 이 성경말씀을 읽으십시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으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고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시69:29~31).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하나님 자녀다운 증거를 갖는 삶이 되도록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다가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 봅시다(고후5:9). 그래야 그 날 후회하지 않을 것이고, 그 날 상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습3:17) 할렐루야!

구제 및 선교 후원금
1379-01-001903
농협
695001-01-122494
국민은행
예금주: 예수중심교회

신유의 은혜

온전히 맡겨드릴 때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는 하늘에 계신 이는 살아계신 이요, 그가 하시는 모든 역사와 그가 말씀하신 모든 언약은 실상이다. 어떤 이는 생각하기를 실존이 아닌 가상적 존재를 종교로 덧씌워 역지로 믿게 하는 허망한 교리처럼 여기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만이 자기의 일을 하시는 엄위하신 이시다.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체험하게 하려 하심이요, 그 아들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하심은 얼마든지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고 친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

인간의 질병은 이 세상에서 우리 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우리가 질병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는 병을 고치는 것이 예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는 고통 속에서 단호히 나오라는 주님의 음성이기에 인간을 괴롭히는 악의 세력에 강력히 항거해야만 한다. 주께서 채찍에 맞으심은 나의 질병을 위함이니 복음이란 한마디로 주의 고난의 반대급부를 취하는 것이요, 담대히 시인하여 나의 사실이 되게 하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담대히 주장하며 감사와 찬양을 쉬지 않는다. 성령께서 치료하시는 자가 되어 “네 믿음대로 되라”(마9:29)고 크게 역사할 것이다.

오늘날 신자들이 병원에 가거나 약을 먹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아니다. 단지 예수

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루어 놓으신 이 위대한 신유가 자기의 영혼 속에 이미 주어졌건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병원이나 약에만 매달리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믿음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고, 또 사용할 믿음을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텐데 이 큰 능력을 가지고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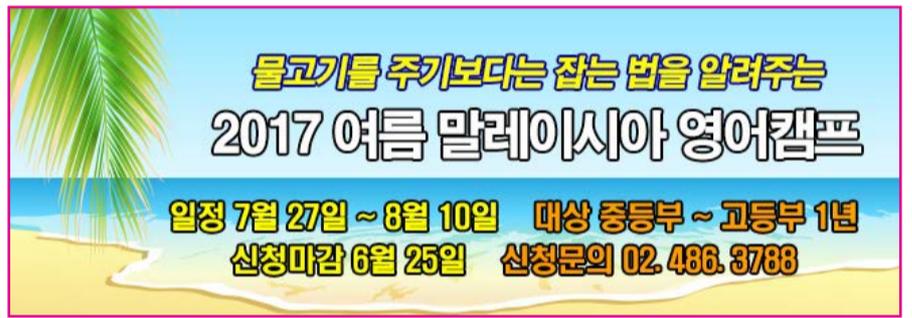
복음은 기쁜 새 소식이다. 전쟁에 나가서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신문기사는 그 부모에게 새 소식이다. 그 부모의 기쁨은 새 소식을 들은 기쁨이다. 어떤 옛장수가 복권을 한 장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도 팔자에 없는 것이라 체념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보고 당첨되었다고 말하니 “공연히 가슴 두근거리게 하지 마. 이 사람아, 복권을 맞을 정도의 운을 타고 났다면 옛장수해 먹겠는가?” 하고 안 듣다가 정말 당첨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절하여 9시간 만에 깨어났다고 한다. 이 옛장수는 복권을 주머니 속에 며칠씩이나 넣고 다니면서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정말이라고 시인하는 순간에 충격이 온 것이다. 믿음이란 인정하는 것이다. 충격이며 새 소식이다. “무식한 소리 하지 마. 신유? 귀신?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위 옛장수와 같은 사람이다. 하나님은 빛과 같으시고 열과 같으시고 바람과 같으신 이시다. 신기류 목사 abba7777@naver.com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던 중 군대에 가야 할 시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입대해서 ‘이왕 갈 거 빨리 군복무를 마치고 나와야겠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다 문득 ‘지금 봉사하고 있는 중고등부 교사직을 계속 맡으면서 군복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때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들었던 산업기능요원이 생각났다. 신체검사 1등급에 고등학교 때 전자과를 나오면서 따놓은 자격증이 있어 자격조건은 갖추어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산업기능요원이 되려고 방위산업체에 지원하는 경쟁자들도 많았고, 각 회사마다 뽑을 수 있는 인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쉽지 나지 않았다.

목표를 세운 뒤 기도하면서 매일 매일 자리가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도 자리는 나지 않았다. 하여 ‘이럴 바엔 차라리 빨리 군대에 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엄마와 ‘그래도 해보겠다’는 나는 마찰마저 일어났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기도하면

서 계속 지원을 했고,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에 지원서를 넣어주는 업체를 통해 지원을 하고는 “하나님, 이번에도 안 되면 저 그냥 입대할래요.” 라고 기도했다.

당시 기도원에서 ‘세계 목회자 영성세미나’가 열렸는데 영상 스태프로 일하게 되었다. 그런데 기도원 수영장에서 핸드폰을 물에 빠뜨려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영성세미나가 끝난 뒤에야 서울로 올라와 기계를 바꾸게 되었는데, 개통하자마자 인천에 있는 방위산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면접관이 보자마자 출근하라고 했다. 알고 보니 회장님, 사장님, 많은 임원들이 크리스천인 회사였다. 그 회사를 다니면서 받은 월급으로 주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고 동계 및 하계수련회와 성경캠프 등 교회의 모든 행사에 빠짐없이 참석할 수 있었다. 99.9%도 아닌 마지막 0.1%까지 100%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주심을 깨달았다. 이은성 es2563@naver.com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잡는 법을 알려주는
2017 여름 말레이시아 영어캠프
 일정 7월 27일 ~ 8월 10일 대상 중등부 ~ 고등부 1년
 신청마감 6월 25일 신청문의 02.486.3788

:: 성경에세이 ::

:: 귀를 기울이세요 ::

주님 앞에 섰을 때

뉴프론티어(New Frontier)!

여보게!
 되돌아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올 3월에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것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았네. 당시 헌법재판관이 탄핵 판결문을 낭독한 후 대통령 탄핵을 확정했지. 그 장면을 보고 있노라니 만감이 교차하더구먼. ‘나중에 나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저렇게 모든 행적에 대해 심판을 받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참 쉽게 생각하지. 단순히 선한 종교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네. 그러나 신앙생활이란 그런 게 아니라네. 좁은 길로 가야 하는,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고라도 꼭 가야 할 곳으로 가야 하는 어려운 일이며, 그래서 열과 성을 다하여 전적으로 매달려야 하는 일이라네.

여보게!
 자네는 예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 당당할 수 있나? “주님, 제가 이만큼 주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나? 대답이 없는 걸 보니 그렇지 못한 모양이네. 주님이 재판하실 때 그분은 더 이상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네. 공의로운

재판장이시지. 그래서 사랑으로 봐달라고,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통하지 않는다네.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행적을 사실 그대로 말한 것처럼 자네의 행적에 대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걸세.

분명한 것은 누구나 사람은 죽는다는 것과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야(히9:27). 그 심판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받는 거라네. 내가 바보라서 가족도, 명예도, 돈도 뒤로 하고 못 들을 소리 들어가면서 험악한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네. 또 상과 면류관도 있지. 더는 한 고을, 다섯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도 주시고, 주님과 한 상에 앉아 심판한다네. 가슴이 쿵쿵쿵 뛰지 않나.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죽음 다음의 심판대를 두려워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만 위해 살아야 하네. 삶에 대한 애착보다 주님의 일에 애착을 가져야 하고, 내 뜻을 못 이룬 것보다 주님의 뜻을 못 이룬 것을 아쉬워해야 한다네. 그 날이 곧 오네. 그 날을 생각하며 주님을 위해 살아 보세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지난 주 한 문화탐험가의 인문학강의를 듣게 되었다. 이 강의는 신세그룹에서 전국 9개 대학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한 ‘2017 지식향연’이라는 프로그램이었다. 올해 이 강의 프로그램의 주제는 케네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케네디의 New Frontier 정신을 계승해보자’는 것이었다. 재임기간 중 77%라는 기록적인 지지도를 보유했던 미국의 제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 후자는 그를 대통령 후보 TV토론에서 낙선을 이긴 승자, 할리우드 배우 마릴린 먼로의 남자, 암살당한 대통령, 영부인이 더 유명한 대통령 등으로밖에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인문학강의를 통하여 그가 미국을 상징하는 아이콘이자 미국인들의 긍지라는 것을 알았다.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마시고, 여러분이 조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친애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베풀어 줄 것인지 묻지 마시고, 인류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가 함께 손잡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문해 보십시오.”

1961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케네디가 한 이 말은 지금까지 회자될 정도로 명연설로 통한다. 그런데 이 연설을 하게 된 배경은 이러하다. 러시아와는 3차 대전 발발직전이었고, 중남미와 아시아에서는 공산화 움직임이 창궐하고 있었으며, 자국에서는 KKK(백인우월주의 비밀결사)이 이유 없이 흑인들을 죽이고 있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다. 이런 역경 가운데 그는 국민들과 세계 시민들에게 New Frontier(개척자)의 희생정신을 호소했다. 이런 그의 바람은 이루어져, 케네디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미국을 세계평화의 선두주자에 올려놓는다.

2017년의 대한민국, 어쩌면 우리의 리네 삶이 케네디가 직면한 그 당시의 미국보다 더 열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모두 New Frontier(개척자) 정신을 가지고 케네디처럼 난세에 영웅이 되어보자. 위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히10:39). 송현혜 charisma0691@hanmail.net

朋友

지혜가 제일이다



민스크 중앙광장에서 함께 기도하였다

지혜도 보호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하는 것이 되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 얻은 자의 생명을 보존함이니라 (전도서 7:12)

6년 만에 다시 만난 슬라바(Slava) 목사는 예전의 젊고 활기차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동안에 겪은 많은 어려움이 고스란히 얼굴에 묻어있는 듯했다. 공항에서 만나 함께 시내로 들어오면서 그간의 사정을 청취하신 목사님은 왜 슬라바 목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파악하셨다. 쉽게 말해서 교회가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에 현 정부와 맞서다가 정치적인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이었다. 즉 종교적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 없이 정치에 관여하다가 교회 전체가 흑독한 고통을 받은 것이다.

목사님은 슬라바 목사에게 조언할 내용을 글로 정리하시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셨다. “목사는 절대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도, 그의 제자들도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 오직 영혼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주력했다. 잘 나가던 주의 종들이 정치 쪽으로 휩쓸리다가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람이 생각하는 정의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해야 한다. 힘 있는 자에게 맞서봐야 나만 다칠 뿐이다. 오히려 그들을 활

이 아니라 그들을 활용하라는 말이다.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 10명의 동지보다 1명의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적과도 동침하라 하지 않던가.”

슬라바 목사는 연신 핸드폰에 기록하며 경청했고, 사모 이리나(Irina)는 ‘처음 듣는 말이다. 모든 고정관념이 깨진다’며 놀라워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목사님이 벨라루스라는 들도 보도 못한 나라에 오게 된 것이, 더군다나 그동안 모든 해외집회 일정을 잠정 보류하시고 건강관리에 집중하시던 중에 이곳까지 오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슬라바 목사를 살리시기 위한 계획임을 알 수 있었다.

슬라바 목사는 목사님의 초청도 비밀리에 진행해야 할 만큼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런 그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목사님 오시기를 간청한 데는 그만큼 그 나름의 절박한 이유가 분명 있었으리라. 살아있는 권력이 옥죄는데 목사 아니라 그 누구라도 당해낼 재간이 있겠는가. 사방이 팍 막힌 난제에 힘겨워하는 종을 하나님께서는 돌아보시고 목사님을 보내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었다.

목사님은 첫 설교부터 예전에 사지가 마비되었던 간증으로 심금을 울렸다.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온몸이 굳어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도 소용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그 어떤 친구도 나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에 돈이 무슨 소용이며, 명예니 권력이나 무슨 소용입니까. 내 몸이 굳어 꼼짝할 수 없는데 말입니다.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고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며 수많은 귀신 조개들이 내 사지를 붙잡아 누르고 있고 내 앞에는 귀신 대장이 저벅저벅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나는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면 이 한 목숨 바쳐 평생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이 간증으로 복음의 문을 여신다. 1년 만에 다시 해외집회에 나와 감회가 새롭다는 목사님은 역시 이 간증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간증을 듣고 있던 슬라바 목사의 감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도 뇌출혈로 쓰러져 반신마비가 왔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목사님은 슬라바 목사에게 말했다.

“우리는 이미 죽었다 다시 산 사람이다. 어디 다른 데로 갈 수도 없다. 하나님께 올인하는 삶뿐이다. 우리 힘을 합해 이 벨라루스 뿐 아니라 구소련 15개국 전체를 복음화 하는데 앞장서자.”

목사님은 민스크 시의 중앙광장 앞에 서서 두 슬라바 목사와 함께 기도하셨다. 이곳에서 대집회를 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역설하셨다.

슬라바 목사는 목사님을 볼 때마다 감사하여 어쩔 줄을 몰랐다. 그동안 교회창립 행사 때마다 많은 집회와 세미나가 열렸지만 이번 25주년 집회와 세미나가 가장 은혜로웠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심히 기뻐했다.

모든 집회를 마치고 슬라바 목사와 성도들은 목사님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해주었다. 그리고 리더들만 모인 자리로 목사님을 초청하여 비록 짧지만 교회성장에 필요한 교육을 받았다. 또 저녁식사 자리에서도 목회경영의 노하우를 전수받았다. 정말 슬라바 목사로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알찬 선물을 아주 엑기스로 받고 있는 셈이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길만 하면 우리가 부족한 지혜도, 능력도, 그 무엇이랄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 생활 속의 잠언 ::

놀랍고도 오묘하지만 어려운 하나님의 사랑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나는 할머니와 유학과 인생을 살았다. 그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지 못했다. 그래서 오랜 시간 어머니와 가슴 진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보지 못했다. 성경을 읽고 난 후 어머니와의 관계를 회복해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해보았지만, 같이 지내자고 해도 싫어하시고 가끔 시간을 내어 계신 곳으로 찾아뵙겠다고 하면 다른 약속이 있다 하며 번번이 퇴짜를 놓으셨다. 이웃도 아니고 원수도 아닌 어머니를 사랑하는 일은 참으로 힘들었다. 그럼에도 성경은 사랑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압박을 가해온다. 어머니를 사랑하라고? 도대체 뭐지? 이리저리 피하시는 어머니가 싫었고, 가끔은 밉기도 했다. 어머니의 마음 문을 여는 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다. 이제는 이틀에 한 번씩 전화를 주고받으며 “내가 너 때문에 산다. 고맙다, 딸아.” 라는 말을 수시로 하신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도 이토록

어려웠는데 어머니가 아닌 이웃을 내 몸처럼 어찌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인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도 없이 주님께 질문하면서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 중에 주님께서 더 어려운 답을 알려주셨다. 우리를 피로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은 나와 내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천은 힘들 때가 많다. 지금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에게 불만의 시선을 보내고 나와 다른 사람에게는 비판의 잣대를 들이댄다. 매일 강의를 하며 만나는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 말을 잘 듣지 않는 학생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기 힘들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영혼과 육신을 흠뻑 적시면 정말 좋으려만 말처럼 쉽지가 않다. 또 한 가지 어려운 점은 기도를 하면서 나 스스로를 의인으로 착각하게 된다는 점이다. 기도를 했으니까, 기도를 하니깐 그렇게 기도하

며 살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살아야 할 텐데, 모든 공로를 내 기도 덕분으로 돌리면서 바리새인의 삶을 살아가기도 한다. 마치 의인이라도 된 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을 지켜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언제쯤이면 그분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숙제를 내주신다.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이 날마다 축복의 말씀이면 좋겠는데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도 감당할 수 없는 숙제가 더 많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좁은 문으로 들어왔지만, 거뜬히 주님 만나는 곳까지 다다를 수 있을 또한 주님의 사랑임을 새삼 되새겨본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빌2:5).

오자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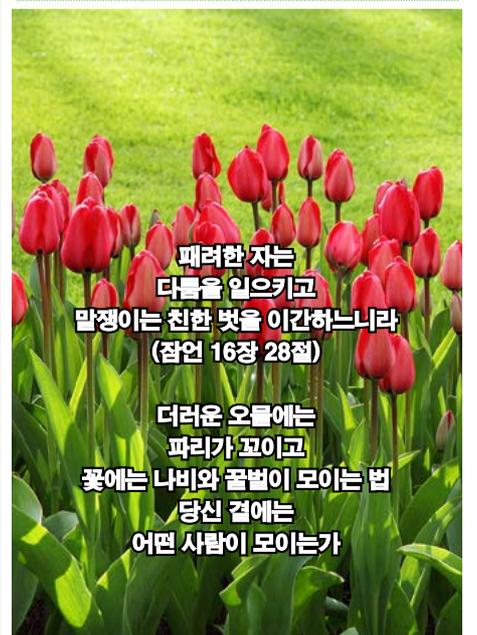
lovelyactor@naver.com

❀ 포기하지 않으면
못 이룰 꿈은 없다

If you don't give up,
your dream will come true.
若不抛弃,
就没有不能成就的梦想。

❀ 꿈이 있는 자는 늙지 않는다

A dreamer never gets old.
有梦想的人不会衰老。



패려한 자는
다름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잠언 16장 28절)

더러운 오물에는
파리가 꼬이고
꽃에는 나비와 꿀벌이 모이는 법
당신 곁에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가